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본궤도'

전주시, 주택건설 계획 승인
자광에 "공공기여·지역공헌
철저한 사업계획 이행" 당부

전주시 효자동 구 대한방직 개발사업(총사업비 8358,000억원) 최종 행정 절차가 29일 전주시의 최종 사업승인이 남에 따라 연내 착공을 뜨게 됐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우범기 전주 시장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전은수(쥬) 자광 대표이사과 공개 간담회를 갖고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의 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개발 민간사업자인(쥬)자광에 전주 관광타워복합시설 사업 추진시 당초 시민들과 약속했던 공공기여와 지역사회 공헌, 철저한 사업계획 이행 등을 거듭 당부했다.

이날 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향후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이끌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쥬)자광이 당초 수차례 밝혀왔던 공공기여·지역사회 공헌·사업계획 이행 등을 주문했다.

이에 전은수(쥬)자광 대표이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까지 적극 협력해 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전주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향후 추진될 개발사업이 전주·발전



29일 전주시청에서 우범기 시장과 전은수(쥬)자광 대표이사과 공개 간담회를 갖고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약속 이행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전주 관광타워복합시설은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향후 시공사 계약체결이 이뤄지게 되며, 이후 착공 전 지하안전평가 및 건축물 구조안전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시는 공사감리자를 선정해 시공사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게 되며, 승인이 이뤄지면 연내 본공사에 착수해 오는 2030년 준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최종승인된 사업부지 내 모든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1+등급)과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우수등급)을 받아 향후 입주예정자 등 사용자의 에너지비용 절감 및 오염물질 배출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건축복합 민원 처리를 위한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건축물 안전영

향평가 등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거쳐왔다. 이와 관련 이번 사업계획 승인은 지난 2018년 5월 사업계획서 사전협의를 신청한지 7년 4개월여 만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 관광타워 복합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돼 지역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업체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 미래성장동력 '적신포'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법원의 1심 취소 판결로
개발 전반 위험, 기업 투자유치·물류기반구축 지연
도민 항공교통 불편 지속, 사실상 '도서벽지' 수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1심 취소 판결로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에 적신포가 켜졌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중앙정부와 전북이 함께 추진해 온 핵심 사업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새만금 개발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2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은 현재 군산공항의 구조적 한계에서 출발한다. 군산공항은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과 활주로를 공용하고 있어 미군 훈련으로 인한 잦은 결항과 연착이 발생하고, 하루 왕복 5편이라는 운항편수 제한으로 도민들의 항공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선 취항이 안보상 이유로 불허되면서 전북 도민들은 동남아·중국·일본 등 출국 시 인전공항까지 3~4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제공항이 부재한 전북은 사실상 항공교통 측면에서 '도서벽지' 수준의 소외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관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우리나라는 일본(인구 2.4배, 공항 95개)에 비해 공항 인프라(국내 15개)가 크게 부족하다. 지방항공교통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새만금 개발의 핵심 동력이다. 새만금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하려면 국제선 취항이 필수적이다. 교부가까지 물류·비즈니스 활동의 중심지 도약, 글로벌 푸드 허브 조성,

관광·MICE 산업 유치 등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해서라도 국제공항이라는 기반시설이 필요한 대목이다. 아울러 공항·항만·철도가 집적되는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에서 공항은 핵심 요소다. 하계올림픽 유치와 전북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필수 교통시설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지방소멸 위험 4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특히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만금국제공항을 통한 지방 거주 국민의 삶의 질 확보와 지역산업 성장 발판 마련이 대두된다.

현재 농생명융합 내부개발,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신항 등 새만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국제공항 추진이 지연될 경우 기업 투자유치 어려움과 물류기반구축 지연 등으로 새만금 사업 전반의 추진 동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새만금국제공항은 현 정부 국정과제에 명시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프로젝트다. 2026년 새만금 주요 사업에는 총 1조455억원의 국가예산이 확보됐고, 공항·철도·도로 등 SOC 예산은 요구액 전액이 반영됐다.

특히 내부개발·수목원 조성 등 기반시설도 적정 예산을 확보해 2023년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의 78% 대가 삭감으로 지연됐던 새만금 개발 정상화의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공항 사업의 지연은 전체 새만금 개발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식물성 대체식품 연구거점, 익산서 첫 출발

익산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푸드테크 거점 도시로 도약한다.

익산시는 29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에서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립에 돌입했다.

연구지원센터는 전국 최초의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 푸드테크 연구 거점 시설로, 원천기술 확보와 사업화 지원 등을 목표로 한다.

시는 지난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센터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지원센터는 총사업비 115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500㎡ 규모로 조성된다. 준공 이후에는 기업 맞춤형 대체육 시제품 제작, 산업 연계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29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에서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식이 열린 가운데,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와 정현을 익산시장 등 참석자들이 첫 삽을 뜨고 있다.

식물성 대체식품은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의 하나로 국내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시장은 2017년 이후 연평균 15.7% 성장해 2026년 2,8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해외 시장도 연 15~20% 성장률을 보이며 새로운 식생활 방식으로 자

리잡고 있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중훈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도·시의원, 농림축산식품부·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첫 삽'
115억 투입 내년 12월 준공 목표

행사는 익산시립예술단의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계획 보고, 기념사, 축사, 시삽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중심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식물기반 대체식품 분야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해 미래 식품산업 기반도 마련하게 됐다"며 "전북도에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미래식품 산업 육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국내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핵심 거점"이라며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농업과 식품 산업을 아우르는 새로운 먹거리 생태계를 조성해 익산시를 대한민국 대표 푸드테크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도공 전북, 서해안고속 동군산~서김제IC 구간 통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IC~서김제IC 구간이 오는 30일과 10월 1일 이틀에 걸쳐 전면 통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통제는 연말 개통을 앞둔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통제 시간은 양일 모두 오전 11시와 오후 2시, 각각 15분간 이뤄진다.

30일에는 군산 방향, 1일에는 목포 방향 차량이 차례로 통제된다.

도공 전북본부 관계자는 "연말 개통을 앞둔 새만금전주고속도로 표지판 설치 작업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통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용객들께서는 출발 전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정체 시 우회도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시민이 주인!
더 듣고 더 뛰는 실천의회
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
IKSAN CITY COUNCIL